

<2013년 1월 4일 자체 금요기도회 잡언>

1. 인간의 뇌는 중독성 뇌다. 뭐든지 반복하면 중독된다.
2. ‘중독된다’ 라는 말은 그것이 좋든지 나쁘든지 반복하면 뇌 속에 조직되어 버린다는 것이다.
3. 반복할 때 느껴진다.
4. 어떤 일이든지 반복하는 만큼 느껴진다.
5. 어떤 것이든지 맛들이면 맛있다.
6. 노는 것도 반복하여 뇌에 차 버리면 맛있다. 고로 계속하게 된다.
7. 일하는 것도 반복하면 뇌에 차서 맛있다.
8. 악한 일도, 선한 일도 반복하여 뇌에 숙달되면 맛있다.
9. 어떤 것이든지 중독되면 좋아서 그것을 좋게 느끼면서 하게 된다.
10. 뇌만 뇌가 아니다. 몸에 뇌신경이 다 깔려 있는데, 그 신경들도 뇌와 같은 성질로 작용한다. 고로 ‘몸’은 확대시킨 뇌다.
11. 무엇이든지 반복하면 중독된다.
12. 일찍 일어나는 것도, 늦잠을 자는 것도 반복하면 중독되듯 한다.
13. 사람들이 연속 반복하다가, 결국 선악 간에 자기 뇌를 고정시키고 산다.
14. 뇌는 다양한 활동을 한다. 중독시켜 만들어 놓으면, 단순하니 그것만 하게

된다.

15. 앓는 자세는 여러 가지로 많다. 각자 자기가 길들인 대로 앓는다.
16. 인간의 삶도 길든 대로 산다.
17. 음식도 짜게, 달게, 맵게, 시게 길든 대로 먹고 산다.
18. 원시인들은 자기들이 먹던 음식에 중독되어 그것을 더 맛있게 먹는다.
19. 사람들은 자기가 사는 환경에 중독되고 길이 들어서, 그 환경이 체질에 맞고 마음이 맞다 하며 산다.
20. 지구 세상의 모든 인생들은 길든 대로 그것이 편하다고 하며 그같이 살아간다.
21. 구시대인들은 1600년 천주교와 400년 개신 기독교에서 산 배경과 말씀과 생각과 행위가 뇌에 절어서, 그것이 습관이 되고 중독이 되었다. 고로 그것이 편하다고 하며 살아간다.
22. 새 시대로 온 자들이 아니고서는 새 시대를 받아들이고 살기 어렵다.
23. 구시대인들 중에서도 그 생각이 구시대의 말씀과 삶을 벗어나려고 하는 자만 습관이 되지 않고 중독이 되지 않아서, 새 시대를 찾고 받아들인다.
24. 전능하신 하나님도, 세상에 새로운 역사를 펴러 오는 구세주도 구시대에는 역사를 안 편다.
(왜 구시대에는 역사를 안 펴실까?)
25. 구시대인들은 구시대의 삶에 중독되어 습관이 되어 버렸기 때문이고, 늙어서 역사를 펴도 효력이 없기 때문이다. 고로 구시대에는 역사를 안 펴고 새 시

대로 온 자들에게 새롭게 역사를 편다.

- 26. 구시대는 이미 만들어 놓은 차나, 집이나, 길과 같아서 안 된다.
- 27. 새 시대 새 방법으로 아예 새롭게 지어야 된다.
- 28. 과거 구시대에는 새 집도 안 짓고, 새로운 생활도 못 했다.
- 29. 언제나 오늘의 생활을 해야 한다.
- 30. 오늘에나 오늘의 생활을 하고, 오늘의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다.
- 31. 이미 흐른 물은 역류할 수 없다.
- 32. 새 시대는 새 시대로 흐르고 있어서 구시대로 역류할 수가 없다.
- 33. ‘구원’도 같은 하나님과 같은 성령님과 같은 성자가 시키시지만, 구시대는 구시대 구원이다.
- 34. 이미 냇물이 흘러가 강이 되고, 이미 강이 흘러가 바다가 되었듯이 구시대는 냇물 구원이고 새 시대는 강물 구원이요, 구시대는 강물 구원이고 새 시대는 바닷물 구원이다.
- 35. 냇물 - 강물 - 바닷물이 구분되듯이, 인생도 시대에 따라 구분된다.
- 36. 역사도 한 인생과 같다.
- 37. 한 인생도 구시대 삶이 있고 새 시대 삶이 있다. 고로 사람들은 구시대 삶을 반복하여 살지 않으려고, 자꾸 연구하고 몸부림치며 기어올라서 차원을 높인다.

38. 개인도 옛것을 벗어나듯이, 역사도 옛것을 벗어나야 된다.

39. 개인도 역사도 과거보다 더 좋아진다.

40. 사람들은 구시대의 삶을 살면서 구시대에 중독되어 좋아한다. 새 시대의 것을 보여 주고 들려주면, 구시대보다 새 시대가 훨씬 더 낫다는 것을 알게 된다.

41. 구시대 생각·정신·생활에 중독되어서 구시대 것을 좋게 느끼는 것이지, 새 시대의 것을 반복해서 보여 주고 들려주고 가르쳐 주면, 젊은이들은 새것을 좋아하며 옛것을 버린다.

42. 바위틈에서 크던 나무도 그곳을 좋아한다. 체질에 배서 그러하다. 그러니 크지를 못한다. 옥토에 옮겨 심으면, 처음에는 몸살을 앓고 고생해도 시간이 갈수록 튼튼한 거목이 되어 가니, 그제야 좋아한다. 옥토에는 가뭄이 없으니 잘 크다. 고로 어떤 계절이든 천국 되어 살아간다. 인생도 그러하다.

43. 반복된 삶을 살면 중독된다.

44. 좋은 것은 좋게 중독되지만, 나쁜 것은 나쁘게 중독된다. 고로 나쁜 것은 아예 반복하지 말아야 된다. 다시는 하지 말아야 된다.

45. 뇌 중독은 몸 중독이다.

46. 항상 기도하여 성자의 생각대로 살아가.

47. 짠 음식, 매운 음식, 뜨거운 음식에 중독되면 짜고, 맵고, 뜨거운 것이 강할수록 더 맛있다. 자극되기 때문이다.

48. 악을 행하는 것도 그렇다. 강하게 악을 행할수록 더 자극되어 더 좋아하며 행한다.

49. 이성 행위도, 자위행위도, 음란물 보는 것도 중독되면, 그것을 행할 때 뇌에 자극을 주니 그것으로 희락을 누린다.
50. 보는 것과 듣는 것에 중독되면, 계속 차원을 높여서 새롭게 해야 된다.
51. TV, 컴퓨터, 인터넷, 각종 놀이도 반복하면, 그것에 중독되어 뇌가 조직되어 버리고 맛이 들어서 늘 그것을 해야 된다.
52. 마약, 담배, 술도 반복하면 중독되니, 맛이 들어서 늘 그것을 해야 만족한다.
53. 뇌도, 몸도, 세포도 중독되면, 늘 그것을 먹어야 되고 행해야 된다.
54. 중독되면, 이미 거기 빠진 것이다.
55. 오직 전능자의 생각으로 반복하여 행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성자의 새 역사로 와서 구원자를 따라서 살아가.
56. 좋은 것을 반복하여 생각하고 행함으로 이상세계를 이루어라!
57. 옛것은 그릇이다.
58. 새것은 담긴 것이다.
59. 욕은 그릇이다. 혼은 담긴 것이다.
60. 혼은 그릇이다. 영은 담긴 것이다.
61. 옛것은 거죽이고, 새것은 알맹이다.
62. 욕의 세계는 그릇이고, 영의 세계는 담긴 것이다.

63. 구약은 옛것이고, 신약은 새것이다. 이제 신약은 옛것이고 성약이 새것이다.
64. 젊은이들이 새 길을 따라가지 않고, 늙은 옛것에 묶여 늙은 옛 인생들과 함께 옛 길을 가고 있다.
65. 옛것과 새것을 쪼개기다.
66. 옛 습관과 옛 버릇이 반복되고 그것에 중독되어 옛 무덤 속에서 살게 하고 있다.
67. 사탄 마귀는 옛것에 중독되어 살도록 그것을 반복하게 한다. 새 역사로 나오면 사탄 마귀로부터, 옛것으로부터 다 벗어난다.
68. 성자는 새 역사에 출현하셨다.
69. 기성인들도 그 시대에는 새것, 새 시대라고 하며 살았다.
70. 새 시대에 와서 새 집을 짓고 사니, 그제야 구시대 옛집인 것을 안다.
71. 혼을 발견해야 욕을 알게 되고, 영을 발견해야 혼을 알게 된다.
72. 새로운 것을 발견한 자만이 무엇이 옛것인지 안다. 새로운 것을 발견하지 못한 자는 자기가 가진 것을 새것으로 안다.
73. 더 좋은 것을 발견해야 옛것을 밟고, 차원 높여 손으로 새것을 잡는다.
74. 옛것을 가지고서는 새 역사를 감당하지 못한다.
75. 새 역사 혼인 잔치 마당에서 거지같이 옛날 옷을 입고 다니면 다 표가 난다. 옛 주관권에서는 그 옷을 입고 휘날렸지만, 새 역사로 온 자들이 보면 원시

인이라고 비웃는다.

76. 원시인이 정장을 차려 입고 잔칫집에 왔는데, 옛 기저귀를 차고 왔다. 그들에게는 정장이나, 새 시대 사람들에게는 옛 기저귀다. **옛 기성의 원시인들아. 때를 알아라!!**

77. 외국에 가려는 사람들이 모였다. 그들은 각각 시내버스 표를 사고 있었고, 혹은 자기 차를 타고 가려고 차에 광택을 내며 으스대고 있었다. 비행기 티켓을 산 사람은 그것을 보고 비웃었다. 때가 되어 비행기가 오니, 모두 놀라 그제야 “어찌할꼬...” 한다. / **비행기는 성자다. 비행기에 태우는 자는 성자가 보낸 분체다. 비행기 티켓을 판매하는 자들은 새 역사의 사도들이다.**

78. 장구 치고 북 치는 기성의 원시인들아. 희고 빛난 의의 옷만 입어라! 그래야 천사장이 나팔 불고 성자가 오시면 휴거된다.

79. 구시대는 더 따라오려고 해도 못 온다. 구시대 철길이 끝났기 때문이다. **고로 가고 싶어도 더 이상 갈 수 없다.**

80. 구시대 철길은 새 시대 출발역까지만 나 있다.

81. 새 시대 구원 열차를 못 타면, 구시대는 그 주관권에서만 살게 된다.

82. 옛것과 새것은 다른 세상이다.

83. 옛사람과 새 사람은 다른 사람이다.

84. 옛 시대인들은 기순이, 전순이, 무순이, 덤순이, 묘순이, 지순이다.

85. 새 시대는 새순이다. 새 빛이다. 새 집이다. 새 말씀이다. 새로운 광장이다. 새로운 여인이다. 새로운 스타들이다. 새로운 인생들이다. 새로운 천국이다.

86.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상징’으로 나타나시니, 사람들이 실감을 못 하고 만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도 너희에게 전할 것을 전하고, 너희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느냐. 벌써 받지 않았느냐. 그것으로 만족하다.**” 하셨다.

87. <상징자>는 심부름꾼이다. 그가 삼위가 주시는 것을 전해 준다. 그를 통하지 않으면 못 받는다.

88. 전능하신 성자의 상징자는 땅의 구원자다.

89. 땅의 구원자도 자기가 보낸 상징자를 통해서 전해 준다.

90. 상징자, 곧 표상자를 작게 보면 원하는 것을 못 받는다. 상징자의 특권은 자기를 보낸 자가 전해 주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91. <상징자>는 본체를 대신한 자다.

92. 하나님과 성자의 상징자는 중심인물들, 사사들, 선지자들이었고 메시아였다.

93. <상징자>는 **하늘과 땅을 잇는 중간 다리 역할**을 한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에게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해 준다.

94. <상징자>는 매개체다. 교량(큰 다리)이다. 길이다.

95. 나사렛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 라고 한 말은 “**내가 하나님께 오고 가는 생명길이다. 내가 상징자다. 교량이다.**” 함이다.

96. 자기 영과 육의 상징자는 혼이다.